

청소년들의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요 약>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개입의 준거점이 되어야함을 인식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대한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의 영향과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개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 내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40부의 설문 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 학교폭력가해행동과 가정폭력노출 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실태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과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가해행동의 발생에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경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주제어: 가정폭력, 학교폭력가해행동,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 부모간 폭력

* 이 연구는 BK-21사회복지『한국사회위기와 신사회복지체계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 1저자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과정

I. 서 론

최근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37개 국가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의 국가 간 비교연구(Akiba et al, 2002)에서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발생율이 약 60%로 전체 37개 국가 중 10위로 보고되어 매우 심각한 학교폭력문제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에 교육부와 경찰청 등 6개 부처의 합동으로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대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나 최근의 연구(한국교육개발원, 2006)에 의하면 학교폭력 발생율은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환경에 중심을 둔 현재의 방법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역부족임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규명과 이에 따른 학교폭력 발생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에서 학교폭력 발생의 중요한 요인으로 가정환경 중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지적하고 있다(김정옥·장덕희, 1999; 김성일, 2005; 김정옥·박경규, 2002; 이은희 외, 2004; 윤희미, 2000; Bancroft & Silverman, 2002; Graham-Berman, 1998; Jaffe & Saundermann, 1995; Jonson et al, 2002; Mejia et al, 2006). 즉 부모로부터 경험한 신체적인 체벌이나 언어폭력, 그리고 부모간의 갈등이나 폭력적인 상황을 자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환경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학교폭력발생 원인에 있어서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부모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은 여전히 청소년들의 행동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양이며 (Olweus, 1996; Crezo, 1998) 적절한 토양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정환경으로서 부모로부터 경험한 언어폭력이나 신체적인 체벌, 그리고 부모간의 폭력행사의 목적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환경에서 또래를 향한 폭력행사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1차 사회 환경인 가정이 개입의 초점이 되어야 함을 증명한다.

하지만 기존연구들의 대다수는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경험이나 부모간의 폭력목격경험 중 어느 한 유형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의 학교폭력발생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점에서 가정폭력노출경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아동학대경험과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을 포괄하여 학교폭력가해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연구들은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과의 경험적 연구의 축적에 기여를 하였으나 가정폭력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청소년의 학교폭력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기능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에 대한 인식 및 폭력행동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폭력행동의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O'Keefe, 1998). 이러한 폭력에 대한 태도는 가정폭력의 노출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가정폭력의 노출경험의 결과로서 보고되고 있다(양주연, 2002; 이상균, 2000; 윤혜미, 2000; 최자은, 1997; Eleanor Lisa, 2000). 즉 청소년의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차 사회 환경인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은 모방이나 관찰이라는 학습과정을 통해 폭력 행동의 결과에 대하여 둔감하게 만들며 폭력에 대하여 용인하는 태도를 내면에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이후 데이트 폭력이나 배우자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김승용, 2002; Eleanor Lisa, 2000) 1차 사회 환경인 가정에서의 폭력노출경험이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폭력에 대한 태도의 결과로서 2차 사회 환경인 학교에서 청소년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역기능적 가정환경으로서 가정폭력노출경험이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써 학교폭력가해행동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학교폭력가해행동발생의 경로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과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가정환경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를 부모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가정환경은 여전히 청소년들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Olweus, 1996; Crezo, 1998). 특히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청소년의 폭력적 행동과 관련하여 가정 내에서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체벌은 폭력행사의 정당성을 내재화시키게 되고 또한 폭력상황에서 폭력행동의 주, 객체가 되는 부모의 행태는 폭력을 대인관계의 갈등 및 문제해결방식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역할모델을 제공하여 폭력이 학습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Bandura, 1997). 이로 인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등 친구들에게 보다 폭력적이며 일반적으로 행동상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인다(Bancroft & Silverman, 2002).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혜원·이해경(2000)은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관련변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부모간 폭력목격경험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부모 간의 폭력행동을 목격한 학생들의 경우 또래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김소명·현명호(2004)의 가정폭력경험이 집단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간의 폭력행사의 목적은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을 매개로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김정옥·박경규(2002)는 가정폭력 정도와 학교폭력가해행동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부모로부터의 언어학대, 신체학대 및 방임의 전 영역이 학교폭력의 하위영역인 괴롭힘, 신체·언어적 폭력, 금품갈취, 따돌림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부모로부터의 언어학대는 학교폭력가해행동의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임을 보고하여 부모로부터 언어적인 학대에 자주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학교환경에서 또래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ejia 외(2006)는 11-19세 콜롬비아 남녀 청소년학생 1,152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경험이 청소년의 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부모간 폭력목격경험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폭

력가해행동을 증가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1차적 사회 환경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인 상황은 청소년들에게 폭력행동을 학습하는 역기능적 토양을 제공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또래를 향한 폭력행사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1차 사회 환경인 가정이 개입의 준거점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2.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폭력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에서 김승용(2002)은 노인을 대상으로 10대 때의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폭력에 대한 태도가 노인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10대 때의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여 가정에서의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폭력에 대하여 보다 허용적인 태도의 경향성이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재엽(1998)의 연구에서도 아동기에 부모 간 부부폭력행동을 목격했던 사람이 결혼 이후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부부폭력태도에 있어서 보다 허용적이었음을 보고하여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폭력에 대한 태도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지지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상균(2000)은 부모, 교사로부터의 폭력적 훈육을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폭력에 대해 우호적인 정의를 발전시키게 되며 이는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높이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윤혜미(2000)의 아동의 체벌경험과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과 아동의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 간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 아동들이 부모나 교사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빈도가 높을수록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양주연(2002)은 부모 간 폭력노출경험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는데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폭력허용도와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인식으로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노출정도가 심할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수준의 폭력허용도와 부정적인 피해자 인식을 보였음을 밝혀 가정 내에서의 폭력노출경험은 청소년에게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가치를 내면에 형성하게 하여 청소년의 주된 생활영역인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 용인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의 폭력노출경험은 청소년에게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이 용인

될 수 있다는 규범적 가치와 태도를 형성하게 함을 의미한다.

3.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와 학교폭력가해행동

폭력에 대한 태도는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 폭력사용 용인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행위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이다(Stith & Farley, 1993).

김재엽(1998)은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부부폭력행사에 있어서 배우자구타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응답자가 부정적인 태도의 응답자에 비해 실제로 높은 부부폭력 행사율을 나타내었음을 보고하여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실제 폭력의 행사와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운선(2005)은 학교폭력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총 32개의 변인들이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중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학교폭력가해행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여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학교폭력가해행동 행사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변인임을 보고하였다. Sears 외(2007)의 7-11학년 영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폭력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예측하는 매우 유의미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Josephson 과 Proulx(2008)는 캐나다의 7-9학년 남녀 청소년학생 32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폭력가해행동 발생에 관한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는데 폭력에 대한 용인적 태도는 폭력가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모욕, 폭언 등의 심리적 공격 전략을 통해 데이트 상대 및 또래에 대한 신체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력에 대한 용인적 태도와 폭력가해행동 간의 인과구조를 규명하였다. 나아가 Eleanor Lisa(2000)는 캐나다의 10-12학년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부모간의 폭력행동목격경험,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및 폭력에 대한 태도가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는데 그 결과, 폭력에 대한 태도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데이트폭력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즉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은 폭력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폭력에 대하여 용인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실제 폭력행동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증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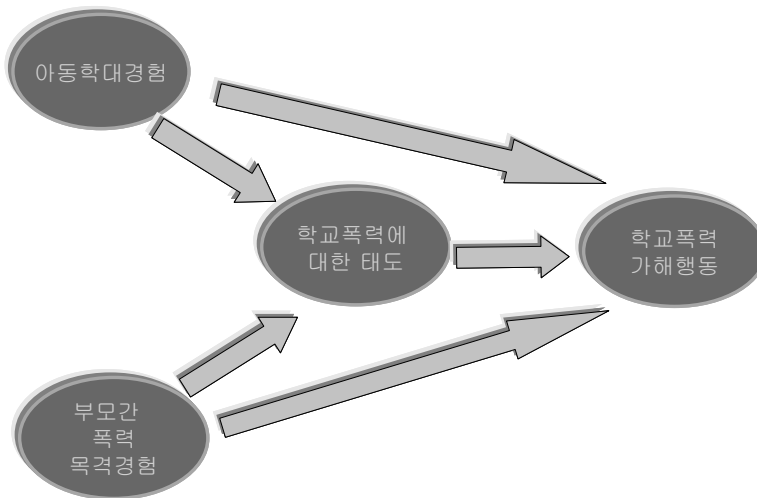
위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개인의 폭력에 대한 용인적 태도는 타인에 대한 폭력행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용인적 태도는 학교폭력가해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학교폭력가해행동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의 아동학대경험과 부모 간 폭력목격 경험은 학교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청소년의 아동학대경험과 부모간의 폭력목격경험이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여 학교폭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측정도구

1) 가정폭력 노출경험

(1) 아동학대 경험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부모가 만 19세 이하의 아동에게 잘못된 대가로 신체적, 정서적 가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아동학대노출경험은 이러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의 아동학대경험은 Straus가 사용한 CTS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CTS는 갈등관리행동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척도로써 폭력 또는 학대를 측정하는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의 1문항으로 구성된 언어적 폭력과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나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세게 밀쳤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의 4문항으로 구성된 경미한 신체적 폭력, 그리고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나타내는 3문항인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없음’은 0점, ‘1년에 한두 번’은 1점, ‘한 달에 한두 번’은 2점, ‘1주일에 1회 이상’은 3점, ‘거의 매일’은 4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06으로 나타났다.

(2)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

본 연구에서 부모 간 폭력을 ‘부모 간에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행위’로 정의하고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은 이러한 부모간의 신체적, 정서적 폭력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 간 폭력은 Straus가 사용한 CTS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척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의 1문항으로 구성된 언어적 폭력과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세게 밀쳤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의 4문항으로 구성된 경미한 신체적 폭력, 그리고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목을 졸랐다’, ‘칼, 가위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을 나타내는 5문항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없음’은 0점, ‘1년에 한두 번’은 1점, ‘한 달에 한두 번’은 2점, ‘1주일에 1회 이상’은 3점, ‘거의 매일’은 4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

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16으로 나타났다.

2)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들이 학교환경에서 폭력을 하나의 문제해결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폭력용인도'로 정의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1997)의 일반인, 대학생, 법조인, 경찰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사용한 '폭력에 대한 태도 척도' 15문항 중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옛말은 일리가 있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들을 때려 키우지 않아 아이들의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다' 등의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10문항을 제외한 5문항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연구목적에 맞게 학교폭력의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해서 수용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09로 나타났다.

3) 학교폭력가해행동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가해행동은 '학교현장에서 또래 및 선·후배에 대하여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따돌림·괴롭힘, 금품갈취를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난 일 년 동안의 학교폭력가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형사정책연구원 김준호(1997)의 학교폭력척도의 하위차원 중 '성희롱 및 성폭력'을 제외한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집단따돌림·괴롭힘', '금품갈취' 차원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없음' 1점과 '1-2번' 2점, '3-5번' 3점, '6-9' 4점, '10번 이상' 5점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2점 이상이면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59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고 서울시 및 경기도 내의 중·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청소년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중된 표본을 피하고 고른 분포의 표본을 얻기 위하여 남녀학생 수 뿐만 아니라 학교가 분포한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을 크게 4대 권역

으로 구분하여 할당 표집하였다. 이 중 협조가 가능한 23개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전체 1145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설문조사는 2007년 10월 22일부터 11월 9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는 사전 교육된 조사원이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직접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145부였다. 이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5부를 제외한 총 114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검토 작업을 진행 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AMOS 5.0을 통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연구에서 사용되는 측정변수와 잠재변수의 관계상의 오차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적합도와 변수들 간의 직접 및 간접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분석이다(김계수, 2004).

본 연구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으로 자료에 결측치(Missing data)가 있음을 고려하여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였다.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였거나(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Missing at Random: MAR)에도 다른 방법보다 정확한 추정방법이다(Arbuckle, 1996). 또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이 심하게 위배된 경우에 FIML에서도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왜도와 첨도를 통해 각 변수들의 정규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모두 정규분포의 가정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X^2 대신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X^2 검증을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할 경우, X^2 검증의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홍세희, 2007)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적합도 지수 중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5.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서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교폭력가해행동을 청소년의 자신의 보고에 의존하여 측정하였으므로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있어서 축소 보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인 서울 및 경기지역의 남녀 중·고등학생 총 114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140

인구사회학적 특성		명	%
성별	남자	581	50.9
	여자	551	48.3
학년	결측치	8	0.7
	중학생	328	28.8
	고등학생	812	71.2
가정생활수준	매우 어려운 편	38	3.3
	비교적 어려운 편	184	16.1
	보통	679	59.6
	비교적 부유한 편	191	16.8
	매우 부유한 편	20	1.8
	결측치	28	2.5
학업성적	하	124	10.9
	중하	224	19.6
	중	313	27.5
	중상	224	19.6
	상	240	12.1
	결측치	15	1.3

분석결과,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은 총 581명인 50.9%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551명으로 48.3%로 나타나 조사대상 성별에 있어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년은 중학생의 경우 328명으로 전체의 28.8%에 해당되었으며 고등학생은 812명으로 전체의 71.2%에 해당되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의 가정생활수준을 살펴본 결과, ‘매우 어려운 편’, ‘비교적 어려운 편’으로 응답한 경우가 총 222명이었으며, ‘보통’이상으로 응답한 경우가 890명으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80.6%)이 보통 이상의 생활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적을 알아본 결과, 중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하위권과 중상위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9.6%로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다. 그 외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12.1%, 10.9%로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다.

2. 학교폭력가해행동 실태

조사대상자들이 지난 1년 동안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또래 및 선·후배를 대상으로 학교폭력가해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학교폭력가해행동의 유형별 발생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박이나 위협 등의 ‘언어폭력’의 경우 총 114명(8.5%)이 응답하였으며 신체부위를 구타하거나 칼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거나 위협, 또는 집단 구타한 경우는 총 200명이 응답하여 16.8%의 발생율로 나타났다. 또한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지속적으로 따돌리며 고의적인 소문을 퍼트려 특정학생을 고립하게 만드는 ‘집단따돌림·괴롭힘’의 경우는 261명(22.4%),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금품갈취’의 경우에는 85명(6.8%)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학교폭력가해유형 중 ‘집단따돌림·괴롭힘’이 22.4%로 가장 높은 발생빈도로 나타나 직접적인 가해행위는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피해학생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폭력이 학교주변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빈번히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위원회(2002)의 학교폭력의 최근 추이와 관련하여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갈취와 같은 물리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집단따돌림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조사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학교폭력의 하위 영역 중 어느 한 유형에라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364명(30.9%)으로 조사되어 조사대상자인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지난 1년 동안 학교주변에서 또래 및 선·후배를 향하여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 중 단 한번이라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과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2〉 학교폭력가해행동 실태

n=1140, 명(%)

폭 력 유 형		경험빈도(지난 1년 동안)				
		없음	1-2번	3-5번	6-9번	10번 이상
언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 겠다 등의 협박이나 위협을 한 적이 있다.	1026 (90.5)	55 (4.9)	25 (2.2)	4 (0.4)	24 (2.1)
	언어폭력 총 발생률	114(8.5)				
신체 폭력	뺨, 얼굴, 머리 등을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960 (84.6)	106 (9.3)	32 (2.8)	8 (0.7)	29 (2.6)
	집단으로 때린 적이 있다.	1080 (95.2)	29 (2.6)	11 (1.0)	3 (0.3)	11 (1.0)
	칼이나 몽둥이, 빗자루 등으로 때리거나 위협한 적이 있다.	1090 (96.2)	12 (1.1)	14 (1.2)	4 (0.4)	13 (1.1)
	신체폭력 총 발생률	200(16.8)				
집단따돌 림·괴롭힘	강제로 심부름이나 과제물 등을 시킨 적이 있다.	1009 (88.8)	72 (6.3)	25 (2.2)	5 (0.4)	25 (2.2)
	지속적으로 따돌리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한 적이 있다.	964 (84.9)	106 (9.3)	23 (2.0)	12 (1.1)	30 (2.6)
	고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퍼트려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싫어하도록 만든 적이 있다.	1050 (92.6)	58 (5.1)	8 (0.7)	4 (0.4)	14 (1.2)
	집단따돌림·괴롭힘 총 발생률	261(22.4)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1055 (93.2)	44 (3.9)	13 (1.1)	3 (0.3)	17 (1.5)
	금품갈취 총 발생률	85(6.8)				
학교폭력 총 발생률		361(30.8)				

3) 가정폭력노출 경험실태

조사 대상자의 가정폭력노출 경험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학대경험과 부모 간 폭력목격 경험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아동학대 경험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지난 1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그 결과, 아버지로부터 언어폭력을 비롯한 경미하거나 심각한 신체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511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43.5%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언어폭력 및 경미하거나 심한 신체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520명인 44.5%로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폭력경험 비율과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 5명 중 2명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부모로부터 언어학대 및 경미하거나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유형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한 전체폭력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들에 의한 언어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미한 신체폭력 중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 경험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회초리로 자녀의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행위를 학대가 아닌 체벌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자녀에게 빈번히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부분이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로부터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일차적 양육책임자인 어머니에 의해 가정 내에서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빈번히 행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한편 심각한 신체폭력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발로 차이거나 주먹으로 맞고 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맞은 비율이 어머니로부터 경험한 심한 신체폭력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심한 신체학대의 경우 주로 아버지에 의해 행사됨을 알 수 있다.

〈표 3〉 아동학대 경험

n=1140

폭력 유형		아버지가 명(%)	어머니가 명(%)
언어폭력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	390(33.2)	394(33.8)
	언어폭력 총 발생율	390(33.2)	394(33.8)
경미한 신체폭력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216(17.6)	228(19.0)
	물건을 집어던졌다.	158(12.5)	166(13.5)
	세게 밀쳤다.	124(9.4)	131(10.0)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122(9.3)	101(7.7)
	경미한 신체폭력 총 발생율	334(28.0)	344(28.9)
심각한 신체폭력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132(10.1)	100(7.5)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01(7.5)	83(6.2)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74(4.8)	80(5.9)
	심한 신체 폭력 총 발생율	175(13.7)	145(11.5)
전체 아동학대 경험		511(43.5)	520(44.5)

(2) 부모간 폭력목격 경험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이 지난 1년 동안 부모 간 폭력행위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먼저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체 조사대상자 중 466명(39.4%)이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조사대상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392명(32.3%)이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버지에 의한 어머니 폭력이 어머니에 의한 아버지 폭력보다 가정 내에서 보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간 폭력목격의 실태를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통해 언어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버지에 의한 어머니 폭력 및 어머니에 의한 아버지 폭력에서 각각 34.9%, 28.0%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보다 높은 발생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부부 간에 정서적인 상처와 인격적 모독을 줄 수 있는 언어폭력이 가정 내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인 청소년 10명 중 3명 정도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경미한 신체폭력의 경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총 195명(15.5%),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것을 목격한 경우는 총 231명(18.8%), 세계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각각 162명(12.6%), 76명(4.8%)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경미한 신체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총 136명(9.9%),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찬 경우는 101명(6.9%), 어머니가 아버지를 세계 밀친 경우는 129명(9.3%), 어머니가 아버지를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경우는 58명(3.0%)로 나타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하여 경미한 신체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하여 경미한 신체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부모간의 경미한 신체폭력은 주로 아버지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신체폭력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것을 목격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84명으로 전체의 5.5%에 해당하였으며 칼, 가위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것을 목격한 경우도 54명(2.9%)이나 있었다. 한편 어머니가 아버지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68명으로 전체의 3.7%에 해당되었으며 물건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한 경우는 44명으로 1.9%, 칼이나 가위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43명인

1.6%로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하여 심각한 신체폭력을 행사한 것을 목격한 경우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심한 신체폭력의 경우, 경미한 신체폭력과 마찬가지로 힘과 권력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아버지에 의하여 주로 행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

n=1140

폭 력 유 형		아내폭력	남편폭력
		명(%)	명(%)
언어폭력	욕설 등의 심한 말을 하였다.	411(34.9)	336(28.0)
	언어폭력 총 발생을	411(34.9)	336(28.0)
경미한 신체폭력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	195(15.5)	136(9.9)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231(18.8)	101(6.9)
	세게 밀쳤다.	162(12.6)	129(9.3)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76(4.8)	58(3.0)
	경미한 신체폭력 총 발생을	300(24.9)	199(15.3)
심각한 신체폭력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84(5.5)	68(3.7)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50(2.5)	44(1.9)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53(2.7)	42(1.7)
	목을 졸랐다.	43(2.0)	39(1.3)
	칼, 가위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54(2.9)	43(1.6)
	심한 신체폭력 총 발생을	110(7.5)	84(4.9)
전체 부모간 폭력목격경험		466(39.4)	392(32.3)

4)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5>과 같다.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하여 용인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서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는 1.78 점(4점 척도기준)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용인적이거나 동조적이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1점 이하의 응답자를 살펴볼 때 전체의 19.6%로 조사대상자 10명 중 약 2명만이 학교폭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또래 및 선·후배사이의 학교폭력을 상황에 따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폭력에 대한 태도 문항 중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라

는 문항과 ‘왕따나 폭력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문항에서는 전체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자인 청소년들은 실제 폭력발생상황 시, 폭력을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피해자가 폭력발생의 원인을 일정부분 제공하는 것으로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5〉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n=1140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학교 및 학급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하다.	1.56	0.77	1	4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1.91	0.98	1	4
옳지 않은 규칙과 질서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야 한다.	1.68	0.87	1	4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데 말보다 주먹이 낫다.	1.42	0.73	1	4
왕따나 폭력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2.30	0.99	1	4
전 체	1.78	0.65	1	4

3.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학교폭력가해행동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인 청소년의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경험과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은 학교폭력가해행동과 정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즉 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언어학대 및 경미하거나 심한 신체학대와 부모 간에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목격 경험이 많을수록 학교현장에서 또래나 선·후배를 향한 폭력가해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언어학대 및 경미하거나 심한 신체학대와 부모 간에 발생하는 폭력목격 경험은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1$)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와 학교폭력가해행동 역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p<.01$). 즉 가정폭력노출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에 대해 용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하여 용인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학교폭력가해행동의 정도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

	아동학대경험	부모간폭력목격경험	학교폭력에대한태도	학교폭력가해행동
아동학대경험	1			
부모간폭력목격경험	.530**	1		
학교폭력에대한태도	.115**	.104**	1	
학교폭력가해행동	.338**	.270**	.294**	1

** p<.01

4. 모형검증 결과분석

1) 모형의 적합도 분석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모형의 적합도¹⁾를 검증한 결과, TLI=.912, CFI=.938, RMSEA=.075로 TLI값과 CFI 값이 .90보다 크며 RMSEA 값이 .08보다 작아 전반적으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자료를 설명하는데 양호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표 7>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적합도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614.4	84	.000	.912	.938	.075

2)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대한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간 폭력목격경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각 변수들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8>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적합도 지수 중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특히 TLI와 RMSEA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한 지수이다(홍세희, 2007). TLI값과 CFI값이 높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이며 RMSEA값은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TLI와 CFI가 .90보다 크면 좋은 적합도, RMSEA는 .08보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이다(Browne & Cudeck, 1993).

<표 8> 측정모형 분석결과

(n=1140)

잠재변수	경로	B	β	t
아동학대 경험	언어학대 ← 아동학대 경험	1.000	.638	
	경미한 신체학대 ← 아동학대 경험	.730***	.929	24.080
	심각한 신체학대 ← 아동학대 경험	.631***	.898	23.978
부모간폭력 목격경험	언어학대 ←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	1.000	.624	
	경미한 신체학대 ←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	.721***	1.012	22.223
	심각한 신체학대 ←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	.338***	.749	21.993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문항1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1.000	.741	
	문항2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1.109***	.647	19.908
	문항3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1.202***	.791	23.775
	문항4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957***	.749	22.805
	문항5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833***	.480	14.842
학교폭력 가해행동	언어폭력 ← 학교폭력가해행동	1.000	.792	
	신체폭력 ← 학교폭력가해행동	.779***	.847	30.657
	집단따돌림 · 괴롭힘 ← 학교폭력가해행동	.880***	.862	31.268
	금품갈취 ← 학교폭력가해행동	.818***	.771	27.448

***p<.001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은 각각 언어학대, 경미한 신체학대, 심한 신체학대로 측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총 5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측정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가해행동을 나타내는 측정변수인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 괴롭힘, 금품갈취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다. 종합적으로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경험과 부모 간 폭력노출경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학교폭력가해행동을 나타내는 각 측정변수와 측정문항들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이론변수들을 측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론모형분석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대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의 영향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매개요인으로 설정한 이론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9>과 같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정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부모로부터 언어학대 및 경미하거나 심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빈번하고 심한 청소년일수록 학교환경에서 또래를 향하여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신체폭력, 집단따돌림·괴롭힘, 금품갈취 등의 폭력적 행동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로부터의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청소년의 행동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정 밖의 학교환경에서 폭력가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위험성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청소년의 또래에 대한 폭력행동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경험과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은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p<.05$)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학교폭력가해행동에 정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언어학대 및 경미하거나 심각한 신체학대를 받은 경험뿐만 아니라 부모 간에 행사되는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학교환경에서의 폭력사용을 정당화하며 폭력을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결과로 또래에게 언어폭력을 비롯하여 신체폭력, 집단따돌림·괴롭힘, 금품갈취 등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모형에서 종속변수인 학교폭력가해행동이 독립변수인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과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 매개변수인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232로 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23.2%로 나타났다

<표 9> 이론모형의 경로계수와 다중상관자승

경로	B	β	t	SMC
아동학대경험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135*	.088	2.231	.020
부모간 폭력목격경험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077*	.077	2.069	
아동학대경험 → 학교폭력가해행동	.461***	.317	8.871	.232
부모간 폭력목격경험 → 학교폭력가해행동	.035	.037	1.118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 학교폭력가해행동	.286***	.302	9.077	

다음으로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와 같다.

Sobel test를 통한 Z_{ab} 값은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Z_{ab} 값은 각각 2.621, 2.057로 1.96보다 크므로 영가설이 기각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으로 검증되어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주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 (아동학대경험 또는 부모간 폭력노출경험)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SE_a : a의 표준오차

b: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 학교폭력가해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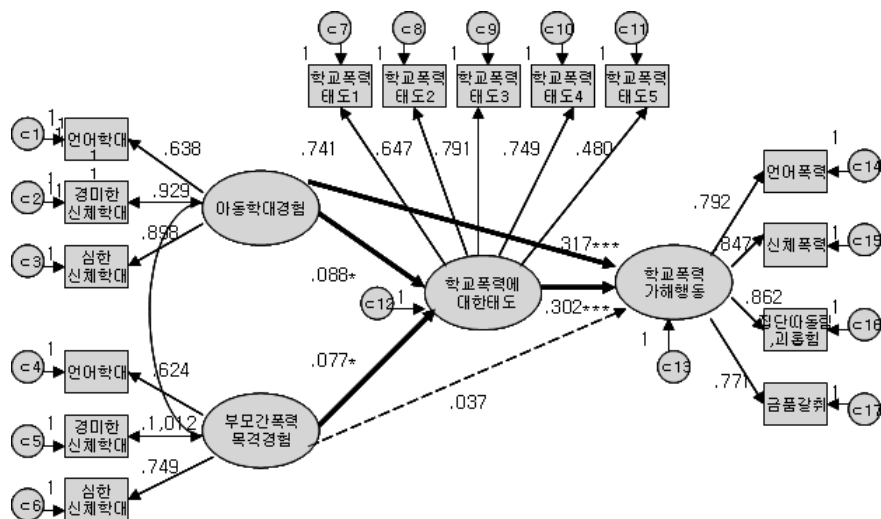
SE_b : b의 표준오차

<표 10>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검증

경로	Z
아동학대경험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 학교폭력가해행동	2.621
부모간폭력목격경험 →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 학교폭력가해행동	2.057

지금까지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대한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의 영향과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경로를 검증한 측정모형과 이론모형의 결과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그림2〉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대한 가정폭력노출경험, 학교폭력태도의 경로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행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개입의 준거점이 되어야함을 인식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의 영향과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학교폭력예방과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중 ·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발생율은 30.9%로 나타나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대책과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 · 고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학교폭력유형별 발생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협박이나 위협 등의 ‘언어폭력’ 발생율은 8.5%, ‘신체폭력’ 발생율은 16.8%,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지속적으로 따돌리며 고의적인 소문을 퍼트려 특정학생을 고립하게 만드는 ‘집단따돌림·괴롭힘’ 발생율은 22.4%,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금품갈취’ 발생율은 6.8%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교폭력가해유형 중 ‘집단따돌림·괴롭힘’이 가장 높은 발생빈도로 나타나 직접적인 가해

행위는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피해학생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폭력이 학교주변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빈번히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보호위원회(2002)의 학교폭력의 최근 추이와 관련하여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갈취와 같은 물리적 방법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집단따돌림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조사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가정폭력의 실태 중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아동학대는 아버지로 부터가 43.5%, 어머니로부터가 44.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년 동안 조사대상 청소년의 약 절반 정도가 부모로부터 언어학대 및 경미하거나 심각한 신체학대를 단 한번이라도 경험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청소년을 둔 가정의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목격한 부모 간 폭력행사율은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39.4%,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이 32.3%로 나타나 조사대상 청소년의 10명 중 3명 정도가 부모 간에 인격적 모독과 정서적, 신체적인 상처가 오고가는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평균 1.78점(4점 척도기준)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용인적이거나 동조적이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1점 이하의 응답자를 살펴볼 때 전체의 19.6%로 조사대상자 10명 중 약 2명만이 학교폭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으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또래 및 선·후배사이의 학교폭력을 상황에 따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경험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언어적, 경미하거나 심각한 신체학대 등의 아동학대를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가정 밖의 학교환경에서 또래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하는 결과로 이는 학교폭력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을 보고한 김정옥·박경규(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부모로부터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직접적인 경험은 청소년의 행동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가정 밖의 학교환경에서 또래에 대한 폭력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위험성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가정폭력노출경험으로서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과 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아동학대나 부모 간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은 청소년에게 폭력을 학습하게 하는 역기능적 토양으로 작용하여 학교환경에서의 폭력사용을 정당화시키며 폭력을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하여 그 결과로 학교폭력가해행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폭력행동과의 관계에서 폭력에 대한 용인적 태도가 매개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한 Eleanor Lisa(200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가 학교폭력행동발생의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기능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적 개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행동의 실태는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폭력가해유형 중 직접적인 가해행위는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피해학생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폭력이 학교주변에서 청소년들 사이에 빈번히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사회사업가나 학교안의 임상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유형의 변화추이에 대처하여 학교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함으로써 학교환경에서 폭력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경험한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시각을 통해 본 부모간의 폭력행사도 역시 심각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상당수의 가정들이 청소년들의 행동 및 정서발달에 적절한 토양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사회를 젊어지고 나갈 미래의 역군인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하였듯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학교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또래 및 선·후배 사이에서의 폭력상황 발생 시, 폭력을 효과적인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용인하는 태도의 경향성이 나타났으며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시각에 있어서 피해자인 학생이 폭력발생의 원인을 일정부분 제공하고 있다고 여기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청소년기는 장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가치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함께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 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부모로부터 경험한 아동학대는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을 통해 폭력피해자가 된 청소년이 가정 밖의 학교환경에서 또래를 향한 공격성을 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1차적 사회 환경인 가정이 개입의 준거점이 되어야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폭력행동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는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가 가정폭력노출경험과 학교폭력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주된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경험 및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이라는 폭력의 학습을 통해 학교환경에서의 폭력사용에 대한 정당성과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가진 청소년이 실제 학교폭력가해행동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로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하여 용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의 연계 체제구축을 통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가족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의 행동발달에 적절한 토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기능의 회복을 모색하고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동시에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청소년에 대한 심리 상담을 통하여 바람직한 행동발달을 도모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해당 청소년에게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교우와의 갈등상황 시, 올바른 갈등해결방식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모색과 함께 폭력의 피해학생이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 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04. 『구조방정식모형분석 AMOS 7.0』. 서울: 한나래
- 김소명·현명호. 2004. “가정폭력이 집단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임상』 23(1): 17-32.
- 김승용. 2002. “폭력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따른 노인부부폭력 연구.” 『한국노년학』 21(3): 129-144.
- 김성일. 2005. “가정폭력, 성역할학습, 학교폭력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2(4): 215-241.
- 김재엽. 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 87-114.
- 김정옥·장덕희. 1999. “가정폭력이 청소년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53-186.
- 김정옥·박경규. 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의 관계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93-115.
- 김준호. 1997.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와 가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폭력 국제학술대회자료집 9-29.
- 김혜원·이해경. 2000.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관련 경험에 대한예언변인들의 탐색: 초·중·고 등학생 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1): 183-210.
- 이상균. 2000. “청소년의 학교비행에 대한 생태체계적 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 15: 109-132.
- 이은희·공수자·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학적 환경과 학교 폭력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6(1): 123-145.
- 양주연. 2002. “아내폭력노출이 청소년녀의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Mentor와의 관계 및 사회심리적 학교환경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미. 2000. “성인의 체벌용인도와 아동의 체벌경험 및 폭력사용에 대한 태도.” 『한국아동복지학』 10: 82-106.
- 한국교육개발원. 2006. 『학교폭력실태조사』. 연구보고 RR 2006-8-4.
- 홍세희. 2007. 『구조 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응용,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시리즈 3』.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학교폭력 실태 발표 및 토론회』 자료집
- 최운선. 2005. “학교폭력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2): 95-111.
- 최자은. 1997.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kiba, M., LeTendre, G. K., Baker, D. P., Goesling, B. 2002. “Student victimization: National and school system effects on school violence in 37 nat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9(4): 829-853.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A Marcoulides and R. E. Schmacker (Ed).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
- Bancroft, L. & Silverman, J. C. 2002. The batterer as parent-Addressing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family dynamics-. Thousand oaks, London: Sage publications.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Bollen & J. S. Long(Ed).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Sage, Newbury Park. California
- Crezo, M. A. 1998. "Parent-child conflict, coercive family interaction, and physical child abusive in R. C.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n family violence*. 17-40.
- Eleanor Lisa, P. 2000. "Risk factors for boy's psychologically abusive behaviors in dating relationship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Brunswick. Canada.
- Graham-Bermann, S. A. 1998. "The impact of women abuse on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Research and theoretical perspective in children exposed to marital violenc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21-54.
- Jaffe, P. & Saundermann, M. 1995. "Child witness of woman abuse: research and community responses, in Stith, S. and Straus, M. Understanding partner violence: prevalence, causes, consequences, and solution, *Families in focus services*, vol II Minneapolis, MN: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 Johnson, R. M., Kotch, J. B., Cotellier, D. J., Winsor, J. R., Dufort, V., Hunter, W. 2002. "Adverse behavioral and emotional outcomes from child abuse and witnessed violence." *Child maltreatment*, 7: 179-186.
- Josephson, W. L., & Proulx, J. B. 2008. "Violence in young adolescents'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2): 189-208.
- Mejia, R., Kliwer, W., & Williams, L. 2006. "Domestic violence exposure in Colombian adolescents: pathways to violent and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9(2): 257-267.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3(1): 39-57.
- Olweus, D. 1996.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can do?*.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 Sears, H. A., Byers, E. S., & Price, E. L. 2007. "The co-occurrence of adolescent boys' and girls' use of psychologically, physically, and sexually abusive behaviors in

their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dolescence*, 30(3), 487-502.

Stith, S, & Farley, S. 1993. “A predictive model of male spous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8(2): 183-189.

The Effect of Family Violence Exposure on School Violence:

Focusing on Attitude toward School Violence

Kim, Jae-Yop*

Lee, Ji-Hyeon**

Chung, Yun-Kung***

This study examine the effects of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olescent's school violence toward peers and whether attitude toward school violence mediate in the process to provide theoretical basi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for the problems of adolescent who exposed to child abuse and interparental violence. Total 1140 adolescent answered were collected from and grade in middle school students to and grade in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Kyung-gi. Frequency analysis was done to assess the actual condition of school violence, child abuse, interparental violence, attitude toward school viole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olescent's school violence and the mediating role of attitude toward school violence in the proc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1) exposure of child abuse have strong positive influences on adolescent's school violence, (2) attitude toward school violence mediate family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Key Words : Family violence, interparental violence, child abuse,
school violence, attitude toward school violence.**

[투고일: 2008. 4. 15. 심사일: 2008. 5. 10. 심사완료일: 2008. 6. 25.]

* 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jaeyop@yonsei.ac.kr)

** Correspondence author. Doctoral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hifivejh@hanmail.net)

*** Doctoral student. Dept.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yink313@hanmail.net)